

특집 : 카자흐한인사회

캬자흐한인사회의 어제와 오늘

영드마뜨리
<알마티국립대학 교수>

1. 서 문

역사란 결코 공허한 땅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역사란 언제나 자신의 특정한 토양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역사도 이전의 역사가 선행되었다. 한국과 한인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과의 역사적 관계는 아주 오랜 옛날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인과 카자흐스탄과는 오랜 접촉 관계가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민족의 발생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보면 한반도에 초기 구석기인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현재 한인의 직접적 뿌리는 보다 늦게 출현한 외래인인 신석기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인류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구비문학 작품들도 한인의 인종적 뿌리는 알타이 산맥 주변과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6세기에 알타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한반도에서 혹해 연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강대국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690년경에 형성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왕정의 궁전 벽화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서 1965년 공개되었다. 이 벽화는 화려하고 밝은 색채로 당시 왕정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벽화들 중의 하나가 외국사신 접견도이다. 이 벽화는 궁신들로 에워싸인 왕 앞열에 중국 사신이, 그 다음열 원쪽에 수르한다리야 강가에 위치한 차가니안국 사신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두 개의 사절단이 있는데, 그 오른쪽은 차스(타쉬켄트) 사절단, 다음 원쪽은 한반도 사절단의 모습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727년 신라의 혜초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였다. 751년 여름 아랍인과 중국인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유명한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즉 군사를 지휘한 장수로 가오 샨치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고구려 후손인 고선지 장군이었다. 칩차크 초원 태생의 전쟁 노예 카자흐인으로 이집트와 멘리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던 베이바르스 술탄과 무자파르 일리투트미쉬 술탄에 비교할 수 있는 고선지는 고구려 출신 중국 병사 고사개의 후손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당시의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고선지 대열에 동행했던 수공업 포로를 통하여 아랍 세계에 제지 기술이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하여튼 이스람 세계에서 그 포로들은 제지와 견포제작에 종사하였다. 후 19세기까지 한인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없었다. 한국은 고립된 나라로 특징지워져있다. 동양학연구에서 한국을 ‘온둔의 나라’, ‘금지된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본격적인 카자흐스탄과 한인의 관계는 19세기 중반을 기다려야 했다. 19세기에 비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한인 이민 물결이 일어났고, 그후 그 한인 이민자중의 일부가 카자흐스탄에까지 이주하게 된 것이다.

2. 한인들의 러시아 망명

구한말 한인들은 혹심한 가난과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피해 러시아 극동에 피난처를 찾게 되었다. 1860년대에 한인들은 일련의 정착지를 연해주 지역에 건설했다. 조국을 등지고 떠난 한인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밀집하여 살면서 자신의 농사활동, 생활관습, 언어, 문화를 보존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최초의 한인 이주민은 18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출현하였다. 그들은 치진혜, 시지미, 얀치혜 강가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정착하자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러시아 연해주 행정당국은 한인이주민의 도움으로 연해주 지역을 개척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 정부는 먼저 한인이 농사를 시작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인이 러시아 농민과 카자크인에게 소작자와 고용인으로서 값싼 노동력, 국경수비대의 식량과 무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1868년 연해주에 대규모의 한인이 이주했다. 그때 러시아 정부는 그들을 한카 호수와 수이푼 강가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했다. 1869년 가을 한반도 북부 지방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홍작이 되었고, 기근에 사달린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그들은 블라지 보스톡과 다우비혜와 수이푼 강가, 올가만 연안에 분산 정착했다. 한인에 대한 지방민의 태도는 다양하였다. 한인을 짚주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주거지와 식량을 제공하는가 하면, 반면에 아무 방비도 없는 이주민에 대해서 강제와 폭언을 하기도 했다. 극동 한인들은 농사이외에도 블라지보스톡 항구 건설, 남우수리스크 철도

건설, 뽐시예트 탄광에서 채광, 살림채벌, 채광장에서 채광하는 일을 했다.

1870년대 한인은 수이풀, 레푸, 다우비해, 수찬 강가에 흩어져 살았다. 코르사콥카, 뿌젤롭카, 시넬니코보 등의 지역에도 일련의 한인 촌락이 생겼다. 이때에 이주민을 이용하여 연해주 지역을 식민화하려고 노력했던 러시아 정부는 한인을 통해서 아무르주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한인은 ‘블라고슬로벤노예(축복)’라는 촌락을 이지역 블라고베센스크에 건설하였다. 연해주 아무르강 연안의 한인들은 농업, 사냥, 어업에 종사하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다. 한인 이주민에 정통한 관리이자 러시아 최초의 러·한 사전의 편자였던 M. 뿌젤로에 의하면 한인들은 근면하고 잘 사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그후 뽐시예트 항구, 치진해, 블라고슬로벤노예 등의 극동지역에 한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열리기 시작했다. 한인들은 이르쿠츠크, 블라고베센스크의 학교, 직업학교, 종교학교, 기타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일부는 베테르부르그에서 공부하였다. 1880~90년대 한인 이주민은 한인의 지위에 관한 韓露條約에 의거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1917년 10월 혁명은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자들에게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을 고무하였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극동의 한인들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열정적으로 혁명을 맞았다. 한인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다. 왜냐하면 이 투쟁은 민족해방운동과 합치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919년 조선의 3.1독립운동 직후 첫 임시정부가 3월 21일 블라지보스톡에, 그리고 4월 11일에 상해에, 4월 21일에는 서울에 수립되었다. 한인 유격대는 불멸의 찬사를 얻었다. 전설적 인물인 흥범도, 김 스탠케비치 A. P., 김유천, 그리고 다른 영웅들의 이름은 영원히 후손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

민족의 영웅인 흥범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민족 운명의 화신이다. 그는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태어나 1894년부터 지방에서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조직하였다. 1913년 일본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 망명, 1919년부터 1922년까지는 개인 부대의 사령관으로서 북만주와 소련 영토에서 일본군과 그리고 백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1921년 이르쿠츠크에서 소련군 제5부대 한인 제1대대 지휘관으로 1922년까지 싸웠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나 권총을 선물받았으며,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했다. 콜호즈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한기별’ 코뮌에 가입했다. 1937년에는 다른 한인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이주당해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일기로 궁핍과 외로움속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망 이후 41년이 지난 1984년에야 그를 기념하는 흥상이 세워졌다.

김 스탠케비치 A. P., 그녀는 극동지방의 해방운동의 전설적 영웅으로서 극동공화국의 외무인민위원, 하바롭스크 시당조직의 비서, 고려상회당의 조직자였다. 그녀는 1918년 아무르 강가에서 처형당했다. 보관된 정보에 의하면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13

보를 걷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조선 13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지방에서 자유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조선을 해방시킬 것을 확신한다.” 일제 사격이 가해지고 그녀는 절벽에서 굽이치는 아무르 강으로 떨어졌다. 그녀를 사형집행한 형리조차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자신의 생명을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 바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 죽었다.” 사형집행 후 일본 영사는 그녀의 총살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 사실은 일본인들이 그녀를 얼마나 두려워했고, 민족해방운동에 있어 그녀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증명한다.

또한 극동지역의 해방운동의 조직자로 고려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동휘가 있었다. 그외에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영웅적인 개인들이 있었다. 뽀시에트 지역당 제1서기이며 17차 전소연방(볼세비끼)총회의 대표였던 김 A. A.는 1938년 탄압을 당하였다. 17차 전소연방(볼세비끼)총회의 대표였던 김 M. M.도 1938년 탄압을 당했다. 김낙현은 연해주 하안지방의 유격대에서 싸웠으며, 블라지보스톡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과 극동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적극 참여한 사람중의 한 명으로 황운전도 있었다.

3. 카자흐스탄에 최초의 한인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지역의 한인 거주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자료는 1897년 러시아제국의 제1차 인구조사이다. 그 당시 한인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끼르기즈스탄에도 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코간드현, 나만간현, 나만간시, 빠쉬뻬크(현재 비쉬케크), 프르제발스크시에 거주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비교적 더 많은 한인이 살았다. 그들은 세미레친스크주 베르넨스크현, 베르니시(현재 알마티), 자르켄트스크현과 자르켄트시에, 시르다린스크주 아울리예-아타시(현재 따라즈), 빠롭스크현(현재 크즐-오르다주), 아크몰라주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인구조사 제7항의 ‘출생지에 있어 타국 출신자의 분류’ 항목에 자신의 출생지를 조선이라고 기입한 사람들이다. 또한 제13항의 ‘모국어에 의한 분류’ 항목에 모국어를 한국어라고 기입한 사람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11항의 외국인 항목에는 기입되지 않았다.

한인의 보다 본격적인 카자흐스탄 진출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정책이 강화되고, 극동에서 러일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달던 20세기초에 이루어졌다. 이 전쟁 초기에 조선이 중립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 땅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러시아와의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조선에 전쟁상태가 선포되고, 어떠한 반일 행위

도 억압을 당했다. 한인은 양국의 중간에 끼어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있었다. 한편으로 한인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 또 다른 한편으로 처음에는 러시아 짜르정부의, 그리고 다음에는 소련당국의 일본 간첩과의 투쟁으로 인한 탄압을 양쪽으로 받았다. 극동의 한인은 일본 간첩이라는 모욕적이고 부당한 혐의로 수십년 동안 백천간 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04-1905년 다른 ‘황색인종’과 함께 수백명의 한인들이 소위 ‘한인의 일본 간첩 행위의 간악한 기도를 예방하기 위한, 짜르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경찰의 감독하에 극동지역으로부터 러시아 내륙지방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한인들은 톰스크, 베름, 맨주, 기타 도시와 인접 현,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바로 국경 가까이로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하여 이주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 한인의 이주와 활동, 일상생활, 러시아 국적 획득, 그들의 감시, 러시아 황제의 한인에 대한 모욕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한인의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한인의 러시아와 이주 맨 처음부터 그들을 빠른 시일내에 러시아화하고 다른 주민과 혼합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집요한 정책에 기인한다. 러시아 정교로 한인을 개종시키는 것은 러시아 국적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간주된 첫 번째 과업이었다. 한인들에게 러시아식 이름을 주었으며, 한식 민속의상과 두발형태는 금지되었다. 예를 들어 한인의 러시아 이름 몇가지를 보면 유-온-포-블라지미르, 라파일로비치 뽐포브, 김-추-이-표도르, 장-한이-알렉산드르 리트비노브, 박-포시-바실리이, 기시-네-백-바실리이 니콜라예비치 피흐토브니코브, 안-인-섭-이-사브라소브 알렉산드르 로마노비치 등이다. 직업별 종류는 세탁소 주인, 이용사, 상인, 수공업자, 일용노동자, 빨래하는 사람, 담배·궐련을 채우는 사람, 의사, 하숙집 주인, 소형 시설물의 소유주 등이었다.

20세기의 사건들, 특히 러일 전쟁과 일본의 의한 조선의 보호국화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를 촉진시켰다. 한인 이민의 숫자는 수천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부산에서 블라지보스톡으로 해로를 통해서, 또는 두만강을 건너는 육로를 통해서 이주 했다. 그외에도 한인들은 중국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20세기 초 한인은 블라지보스톡, 하바롭스크, 니콜라옙스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이만, 올가, 블라고 베센스크, 치타 등 여러 도시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다. 한인 이민을 촉진시킨 새로운 계기는 일본의 조선 합방이었다. 소련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최초의 인구조사는 1926년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수십명의 한인이 아크몰라주, 세미팔라친스크 주, 시르다린스크주에 살았고, 개별적으로는 까라간다, 크즐-오르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타쉬켄트주, 부하라관구, 수르

한다린스크관구와 끼르기즈스탄에 살았다.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는 한인이 이지역에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주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1920년대 카자흐스탄 벼농사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 1920년대 후반에 소련 정부는 면화자립국을 만들기 위해서 면화 재배의 발전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면화와 같이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인 벼농사는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쌀은 중요한 산물이다. 벼 생산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강구되었다. 남쪽 지방에서는 면화 재배를 위해 유용한 모든 땅은 면화를 재배하나 그 북쪽 한계선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카자흐스탄의 영토가 면화 재배의 북쪽 한계선에 해당되었기에 카자흐스탄을 벼곡창 국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졌다.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끝난 후에 벼농사 배당이 면화 재배의 북쪽 한계선인 세미레친스크주, 특히 알마타 관구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그곳의 벼농사를 짓기 위해 당시 건설중이던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에 인접한 기름진 땅의 개간 계획이 세워졌다. 1928년 초 벼농사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 건설의 책임자 뚜라르 뢰 스풀로브가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였다.

그런데 벼농사 전문가와 벼 재배 경험의 부재때문에 문제가 첫날부터 제기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여러 지역에서의 벼재배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품종 시험을 시작하였다. 그 중 극동에 사는 한인의 벼농사 재배 경험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결국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의 발전 문제는 극동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어졌다. 당시 극동에 사는 한인은 경작 토지를 노예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조건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카자흐 공화국 지도자들은 “이 조건이면 한인들의 카자흐스탄 이주를 촉발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벼농사 재배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극동의 한인을 카자흐스탄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1928년 봄 카자흐스탄 농업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세미레친스크현으로 블라지보스톡 관구에서 70가구, 300명 이상의 도작업자와 양잠업자가 도착했다. 그들에 의해서 한인 농업 협동조합인 ‘카즈리스(카자흐스탄 쌀)’가 조직되었다. 1929년 1월에는 벌써 다른 생산 농장에 볍씨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카자흐스탄은 소련 전국에서 가장 넓은 벼파종 국가가 되었다.

4. 강제 이주

1920년대 30년대 극동의 한인 사회는 자신의 관습과 전통을 형성하고, 커다란 경제

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을 축적한 인간 공동체이었다.

극동지역에 수십 개의 항인 농업 콜호즈와 어업 콜호즈가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한인 주거지와 민족 농촌 소비에트가 존재하였다. 한인은 모든 수준의 국가와 사회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민족문화와 언어가 발전하였고, 민족 인텔리총이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한어(韓語)로 신문, 잡지가 발생되었고, 한어 출판소, 라디오방송, 극장, 사범대학, 대학 고려학과, 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 문화계몽시설 등이 존재하였다. 수백명의 한인 인텔리들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블라지보스톡, 이르쿠츠크, 음스크, 톰스크, 스베르들롭스크, 보로네즈, 사라토브 등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강제이주 전 극동에서 한인 작가들에 의해서 출판된 학술서적을 분석하여 보면 그들이 언어, 풍습, 전통, 농업, 어업의 문제와 사회현상, 역사과정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한인의 극동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의 집단적 강제이주는 일련의 준비과정이 선행되었다. 1935년 개별적 한인들이 카자흐스탄 아랄해의 섬으로 유형보내졌다. 그들은 이어 저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분파싸움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고소되었다. 1937년 소련 선전기관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극동의 일본 간첩 문제에 마치 한인들이 관여된 것처럼 과대선전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강제이주의 이유를 해명해 보면 한인들은 소련 정부의 극동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일반적 정책수행의 도구였다. 온 힘을 다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온 전체 한인은 민족적 집단책임을 이유로 재판도 심리도 없이 일본 간첩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집단적으로 강제이주당한 것이다. 목격자들은 강철같은 한민족의 영웅 흥법도 장군이 짓궂은 운명으로 크즐-오르다에 이주당해와 밥을 짓기 위해 싸라기를 추리며 쌀기울을 까부르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말년에 조선 극장의 수위로 일하면서 다른 박해받은 한인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궁핍을 겪었다.

강제이주, 이는 전체주의의 체제의 자기 시민에 대한 집단학살과 다름 아니다. 강제이주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인종은 생득적으로 소속된 인종집단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은 1948년 12월 9일 채택되고, 전체 유엔 가입국에 의해서 인준된 ‘집단학살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직접적 집단학살로 규정되었다.

1991년 4월 26일 러시아에서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에서 강제 이주에 대해 “한인에게 간첩죄를 씌운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중상정책이고, 강제이주를 수반하고 특별유형지에서 폭력과 강제적 제재를 가한 집단 학살이다”라고 그 불법성을 인정했다.

극동 한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1937년 8월 21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의장 몰로또프와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이 서명한

‘일본 간첩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에서 한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명령서(No.1428-326cc)이다. 이주대상 지역에서 ‘이주 3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단기간의 준비기간으로 모든 생활용품을 버리고 다만 한달여의 여정을 고려한 식량과 필요한 옷가지만을 지닌 채 중환자,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한인이 예외없이 화물과 가축 운반 열차에 실려, 천여Km의 대륙 깊숙이 보내졌다.

이주출발지에서는 체카(반혁명·사보타지 및 투기 단속 비상위원회) 요원들이 방벽으로 포위되었다. 이주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주시 수백명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다. 출발장소에서, 이주 도중 열차에서 그들을 체포했으며, 그 뒤에는 정주지에 사건을 넘겼다. 징벌은 카자흐스탄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인이 정주한 지역은 다시 끝없는 굴라그(교정노동수용소)에 다름아니었다. 놀랄라고, 시비리라고, 까르고 뿐라고, 소로프라고, 크拉斯라고, 북철도라고, 바트라고, 그들을 특별협의회, 내무인민위원회의 3인조가 심판했다. 형법에 의거 ‘일본 간첩’으로 형이 선고되었음을 기록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한인은 화물과 가축을 싣는 열차에 실렸다. 탑승자 전원은 아주 더럽고 깨어진, 혹은 아예 유리창도 없는 지붕에 구멍이 뚫린 열차에서 고통을 겪었다. 이주가 시작된 때는 사실상 이미 추위가 시작되었다. 수송열차 행렬은 다시 옮겨 실어졌으며, 이때 가족 구성원이 다른 열차에 실리기도 하여 친척을 잃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행한 우발적 사태나 집단적 질병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강제이주 한인을 실은 거대한 비극의 수송열차 행렬은 아시아 대륙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끝, 즉 블라지보스톡으로부터 타쉬켄트까지 이어졌다. 수송열차는 출발지도, 행선지도 알려지지 않고, 탑승원도 누구인지 모르고, 수송열차의 번호도 없는 마치 유령열차와도 같았다. 수송열차에는 내무인민위원회가 함께 동승했다. 내무인민위원회의 모든 조직은 한인의 운송 과정에 투입되었다. 운송 도중에 집단적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 질병이 많았다. 예를 들어 홍역에 걸린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60% 가량이 사망하였다.

1937년 9월 말 최초의 한인 이주민을 태운 수송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카자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한인을 맞아주었고, 당국의 한인 환대에 대한 공식적 금지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시 카자흐인은 30대 초 220만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작은 10월’이라 일컫는 자신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의 시기였던 대기근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유명한 한인 벼재배업자인 사회주의 노력 영웅 김만삼은 카자흐스탄 땅에 도착한 첫날에 대한 회상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과연 우리들에게 다른 민족이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인가 하고 나는 다른 동포들과 함께 몹시 의아해했고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카자흐인의 등근 식탁(다스따르한)은 그들의 초원 만큼이나 넓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은 친절한 손님 환대에 대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동포들이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얘기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공화국 내무인민위원회 수용소 노동유형 감금 분과의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 90회 이상의 수송열차, 20,789가구, 98,454명의 한인이 이주되었다. 한인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 대륙의 한 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끝으로 강제이주시킨 것은 민족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에 다름 아니다. 태평양 해안과 카스 피해 연안의 차리 만큼이나 많은 차이가 나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한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한인의 강제이주는 전체주의 국가의 인민의 운명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카자흐스탄에 이주된 한인은 두 단계의 재이주를 겪었다. 첫 번째는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까지로, 그들은 극동에서 이주해 도착된 지역에서 토굴, 창고, 말마구간, 돼지우리, 폐허가 된 사원, 옛감옥, 기타 다른 장소에서 임시적으로 살았던 시기이다. 이주된 장소에서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기근, 권리박탈의 상태로 첫 겨울을 보냈다. 이 때 집단적 질병이 발생했고, 특히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이 높은 사망율을 보였다. 1938년 봄 제2차 한인의 재이주가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전체 이주 한인 중 거의 60%가 재이주를 당하였다. 재이주는 작게는 도보 20km에서 철도로 4,000km까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한인들은 영구 정착지로 분산되었다. 한인의 대다수는 미개척지와 황폐화된 땅, 파산된 솜호즈로 분산되었고, 기존의 카자흐 콜호즈에 병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70여개의 독립적인 벼농사, 농업, 어업 콜호즈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또한 203개의 기존 콜호즈에 1가족에서 20가족 이상까지 합병되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한인들은 91개의 솜호즈(국영농장)와 다른 산업체, 기계-트랙터 보급소, 가내공업조합, 광산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후 세 번째의 재이주 단계가 있는데, 이는 금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안에서 재이주한 경우이다. 그들은 한인이 집단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강제이주에 의해서 흩어진 가족 및 친척과 결합하려고 노력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이주민들은 추방지와 이주 도중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구금생활중에 인명 손실을 당했으며, 또한 불행한 우발적 사고, 특히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야, 이질, 말라리야와 같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괴혈병과 홍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보았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전혀 다른 자연적 기후환경을 맞게 되었다. 온화하고 축축한 극동 연해주의 계절풍 기후와 달리, 여름에는 혹서와 겨울에는 혹한의 극한 날씨, 그리

고 더위와 추위가 급격히 변하며 북풍과 북동풍이 주로 부는 건조한 카자흐스탄의 강한 대륙성 기후와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의 정보에 의하면 몇몇의 한인 정착지에서는 말조차 이런 기후를 견디지 못하여 농사를 짓기 위한 일소가 꼭 필요할 정도였다. 이주의 어려움의 에도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전혀 다른 민족경제, 사회문화, 언어 환경에 봉착했다. 극동에서의 이주 결과 한인들은 자신이 역사적 조국인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되었다.

박해와 이주 결과 한인은 교육, 문화, 언어의 분야에 있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1938년 9월 1일의 정부 지시에 따라 한인 학교와 까잘린스크의 고려사범학교가, 다음으로 크즐-오르다의 고려사범대학이 폐쇄되었다. 1939년 12월에 ‘한인문학에 대하여’와 서적판매소와 도서관에서 ‘한어 서적의 사용 중지에 대하여’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출판에 있어 비밀유지담당 국가위원회의 준엄한 감독하에서 극동에서 한인이 가져온 수만권의 도서가 소실되었다. 교과서만 134과목의 12만여권 이상의 손실되었다. 거기에는 1만7천권 이상의 다양한 수준의 한어 학습교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크즐-오르다 고려사범대학에 소장된 회귀본을 포함한 많은 양의 한어로 된 서적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지속되었다. 한인은 강한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특장(特長)을 살려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조국에서 정착을 해나갔다. 카자흐스탄의 한인이주는 무엇보다도 이곳의 농업생산에 획기적 발전 가능성 을 가져왔다. 국가계획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후 첫 번째 봄에 한인자립 콜호즈는 26.8ha 경지에 곡물, 야채, 참외, 공예 농산물의 종자를 파종해야만 했다. 그런데 1939년 그들은 벌써 38,482ha를 파종했으며, 한인 콜호즈에만 104개의 축산농장이 생겼다. 1940년에는 크즐-오르다주에서만 25.026ha의 봄갈이 작물을 파종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벼농사 발전은 한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무미건조한 모든 지표의 수치 뒤에는 황무지 초원을 자기의 손으로 일구고 가꾸어, 꽂피는 오아시스로 만든 강제이주 세대의 무한한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매 소트카(100분의 1ha)마다, 매 ha마다, 모든 가축우리에, 모든 논에, 관개수로 하나 하나에, 작업복과 삽들에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위대한 땀이 질펀하게 묻어 있는 것이다.

5. 전시와 전후의 한인사회

30년대가 지나고 40년대가 되었다. 이제 한인은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되었다. 1941년 6월 2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비록 한인은 강제이주라

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애국자였다. 그런데도 그들에겐 자신의 손으로 무기를 잡고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킬 권리가 박탈되었다. 그들에겐 소위 ‘노동 종대’라 불리는 노력전선군의 임무가 할당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한인들은 전선에 보내 줄 것을 청했고, 전쟁 초기에 수백명의 한인들이 군정치위원회에 전방으로 파병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중에 몇몇은 전선에 보내졌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소비에트 연방 영웅 민 알렉산드르 P.이다. 잠수함장 한 A., 첨보원 최 V. 하사, 보병대대장 전 S. 대위, 기관총 사수 전 M.도 애국심과 용맹성을 발휘하였다.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4년 간의 힘들고 긴 전투에 여군 의무상사 림 V.가 참전했다. 그녀의 용맹성은 그녀가 받은 전쟁포상이 증명한다. ‘군복무상’, ‘용맹상’, ‘모스크바 방위상’, ‘바르샤바 수복상’, ‘베를린 정복상’, ‘붉은 별 훈장’, ‘조국전쟁 훈장’.

전쟁기간 카자흐스탄인 수십만의 아들과 딸들을 전선에 보냈고, 카자흐스탄은 병참 기지가 되어 군대에 양식과 군복, 문화를 제공했다. 전쟁 기간에 한인 콜호즈 조합원들은 문자 그대로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으로 급격히 파종 면적을 넓히고 수확량을 늘렸다. 크즐-오르다주 칠리구역의 ‘아반가르드(선봉)’ 콜호즈의 벼재배 조장 김만삼의 공훈은 카자흐스탄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1941년에 그는 벌써 ‘명예 표식 훈장’을 받았다. 그가 지도하는 콜호즈 벼품종시험소에서 21개의 종류의 벼가 재배되었다. 벼 재배의 가장 적절한 조건을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 그는 1942년 1㏊당 15톤의 수확이라는 세계기록을 수립했다. 김만삼의 높은 벼수확의 방법은 전 카자흐스탄에 널리 보급되었다. 김만삼에 대한 노래가 지어지기도 했다. 1945-46년에 그는 두 번에 걸쳐 ‘적색 노력 훈장’을 받았다. 1947년 스타린 상이 수여되었고,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의 영광이 주어졌다. 아반가르드 콜호즈의 11명의 노력영웅들은 그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치부한다. 그의 제자 중의 유명한 한 사람은 아반가르드 콜호즈에 인접한 ‘크즐-투’콜호즈의 벼재배 지도자로 스탈린 상 수상자이며 이중 노력영웅인 카자흐인 이브라이 자하예브이다.

한인들의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포상에 의해서 높이 인정되었다. 그 예로 알마아타 주 까라딸 구역만 보더라도 1946-47년 사이에 ‘1941-45 대조국전쟁 기간의 탁월한 노력 메달’을 받은 전체 3,861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이 한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인은 대가없이 비행기, 탱크 제작 물품과 전선 파송 물자를 납품함으로써 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군인들의 가족을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 전쟁기간의 어려운 때 김만삼은 ‘크즐-오르다 콜호즈 조합원’ 탱크종대를 만드는데 10만5천 루블의 개인 예금을 전달했으며 ‘달리니 보스톡’조합장 신현문은 방위폰드에 12만 루블을 회사했다. 다른 ‘볼새비크’, ‘기간트’, ‘아반가르드’, ‘광동 콤뮌’의 한인 콜호즈도 방위폰드에 35만 루블 이상의 금전과 10만 루블 이상의 채권, 6편 뿐드(1뿌드=16.38kg)의 쌀과 1만 8천 가지

의 병사용을 기증했다.

한인은 노력전선군에 징집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전소련의 탄광, 금속 등 기타 중요한 전략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전선군은 전선으로 파견할 수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민족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한인은 까라간다, 러시아, 꼬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지의 광산으로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전쟁기간 동안 까라간다 탄광에서만 2,000명 이상의 한인이 사망했다. 종종 독일인, 죄수, 전쟁포로와 함께 불가장 유역에서 일했다. 의무적인 생산기준량의 수행은 그들에게 주어진 '전투과업'이었다. 노력전선군은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최근에 와서야 노력전선군들도 '위대한 조국전쟁'의 노력전선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한인 이주민들은 강제이주 직후의 큰 어려움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조국 소련의 환난기에 참된 애국심을 발휘하여 전쟁 승리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한인의 성실한 국민의 의무 수행과 농촌 농민들의 애국적 노력, 기타 다른 부문에서 노력은 마침내 전쟁의 종식과 함께 한인 이주민에게 평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인들은 소련 정부의 전후 극동정책의 도구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련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극동 아시아의 전후 처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소련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한반도는 이전에 다양한 인종과 문명이 충돌한 지역이었다면, 이번에는 화해하기 어려운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장이 되어 다시금 국제적 투쟁의 무대가 되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곧바로 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한반도는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또 한 번 심한 동요를 느꼈다. 소련 정부는 1937년 일본 간첩의 근절을 목적으로 그들을 극동으로부터 이주시키고는, 그때부터 채 10년도 안된 1946년에는 그들을 재차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으로 되돌려 보내고, 북한에 소련식 제도를 이식시키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이는 한인 이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자흐스탄 한인이 한반도의 분단에 개입되게 된 것 이외에도, 한인중 모국어를 잘 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동에 다시 되돌려 보내지고, 북한에 파견되는 등 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주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 한인들 삶에는 또 다른 비극의 자취가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타고난 한인 특유의 인내심과 불굴의 정신, 근명성으로 운명의 고난을 극복하고, 전후에 자신의 드높은 정신적 도약을 다시 보여 주었다. 한인은 특히 카자흐스탄의 농업 발전에 있어서 활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1949년 크즐-오르다

주에서만 14명의 한인이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고, 이중 13명은 높은 미곡수확증대로 받은 사실만으로도 증명된다. 1950년 같은 주에서 17명의 한인 벼 재배업자에게 노력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 한인은 또한 딸드-꾸르간주의 까라밀 구역의 곡물 생산과 사탕무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1948년 까라밀 구역에서 21명의 한인이 곡물과 사탕무우 수확증대로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다.

1950년대에는 침켄트주 제트사이스키 지대에서 면화 재배에 성공하였다. 딸드-꾸르간과 크즐-오르다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온 한인들은 헌식적으로 면화밭에서 일을 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은 새로운 황무지에 선진적인 면화사업이 생겨났고, 생기있고 잘정돈된 촌락 ‘공산주의로의 길’, ‘공산주의의 노을’, ‘제3 인터내셔널’, ‘프로그레스(진보)’, ‘빠흐타-아랄’이 형성되었다. 수십명의 한인 면화재배업자들이 면화재배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그 중 4명은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다. 야채와 기술작물 재배에 있어서도 한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까라밀 구역의 ‘레닌스키 뿐찌’ 콜호즈의 선진적 야채 산업 경험은 공화국 바깥에까지 유명하게 되었다. 콜호즈의 생산 활동은 1952-56년까지 소련 국민경제 달성 박람회에 전시되었다. 사탕무우, 야채배에서 달성한 업적으로 5명의 한인이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고, 8명이 레닌 훈장을, 13명이 적색 노력 훈장을, 39명이 메달을 받았다.

한인 근로자의 양파 재배에 대한 공헌도 빼놓을수 없다. 60년대 초 까라밀 구역의 콜호즈만 해서 카자흐스탄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파의 70%를 생산했다. 1957년 젤리노 그라드주에서의 처녀지 개간과 농업과 축산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꾸스타나이주에서의 곡물 재배의 성공에 대한 공로로 두 명의 한인이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다. 알마아타주 일리에서 ‘박바흐첸스키’ 콜호즈가 조직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인의 성공적으로 일을 하였다. 그곳 한인에게도 노력 영웅 칭호가 주어졌고, 그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소련 국민경제 달성 박람회에 끊임없이 참가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카자흐스탄의 ‘명예의 황금책자’에 기입되었다. 150명 이상의 한인들이 여러 해 동안 산업, 농업, 건설, 설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장기간의 성실한 노골 ‘공로 일꾼’의 칭호를 얻었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또한 과학, 문화, 교육, 예술, 문학, 보건, 체육,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공헌을 했다. 1970년대 초 공화국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에 약 200명의 한인 교수와 교원이 재직하였다.

모든 소련 인민의 삶에서와 마찬가로 카자흐스탄 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는 1953년이었다. 이 해에 비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공민 권리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정치체제 약화의 첫 신호가 나타나자 마자, 한인들은 자신들의 이민 생활에서의 민족발전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장 진요한 문제는 언어, 교육, 민족신문, 민족극장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민족적 독창성으로 회복하려

는 노력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었다. 1957-58년에 한인은 집단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공화국과 소연방 최고법원에 편지를 보냈고, 이는 직접 '명예회복'에 대한 청원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소련 지도부는 한인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청원운동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급기야 '한인의 문화·계몽 사업의 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한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견적 활동기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중 몇몇 조치들은 단기적 움직임만 보였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맘에 내키지 않는 명예회복의 요구에 서서히 제동을 걸었다.

6. 한인의 문예 부흥

1960-70년대 카자흐스탄 한인의 삶은 다른 인민과 마찬가지로 '민족간 친화와 융합'이라는 소련 이데올로기와 정책 발전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점진적으로 상실하는 과정을 겪었다. 당시의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념일만 쉬게 되었다. 한인 사회의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보통 이런 행사는 한인 아주 문제는 거의 다루지 못한채 진행되었다.

1985년 소련에서 폐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폐레스트로이카는 실제보다는 말로만 이루어졌으며, 1986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민족분규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결국 공화국의 주권독립국가 수립을 촉발한 민주화 운동을 활성화 시킨 자극제가 되었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다른 전체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인의 민족문화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강요된 진 세월의 침묵 끝에 한인은 민족발전 문제, 그 중 첫 번째 과업으로 관습과 전통, 언어, 문화의 보존 문제를 내세웠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그들의 역사적 조국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였다.

한인 단체 결성은 한인 이민의 재생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공화국, 주, 도시, 구역별로 십여개의 한인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이 한인 단체들은 한인들을 사회적-인구학적 특징과 이해관계 등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유일한 목적은 민족의 부활에 있다.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1990년 3월 17일 알마아타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고려문화중앙' 창립총회이다. 이 총회에 카자흐스탄 전체에서 96명의 대표와 모스크바·하바롭스크·타쉬켄트 등의 한인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한 구리 B. 교수가 선출되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로 개조되어 채 유리 A.가 이끌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한인이 이주해와 정착한 지 반세기가 지난 1989년 크즐-오르다에서 처음으로 '한인 문화의 날' 행사가 거

행되었다. 한인들은 조직적, 공개적으로 한인 전통 명절인 음력 설날을 경축하였으며, 한인 이민사에 중요한 기념일을 갖게 되었다.

1989년부터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서울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한민족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모국어 학습도 부활되기 시작했다. 1990년, 1991년 처음으로 모국어 교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0년 알마아타에서 처음으로 아마튜어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1994년 8월 14-15 양일간 한인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딸티-꾸르 간의 우슈또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인 문화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4일에는 1937년 한인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아준 카자흐스탄 인민들에 대한 보은의 날이었고, 15일은 한반도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 행사는 초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김창근대사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대사로 임명 받고 임지로 부임하자마자 곧 한인 집성촌인 우슈또베를 방문하고는 다음과 같이 기록 했다. “우슈또베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창문 양쪽의 눈 덮힌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1937년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열차에 실려, 생전 모르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이 겪었을 그 당시의 시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카자흐인의 큰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선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난에 처한 사람에게 베푼 그들의 큰 사랑을 배워야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축제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 서한을 보내 축하하였다.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자신의 편지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공화국의 경제적, 정신적 잠재력의 발전에 있어서 한인의 공헌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훌륭한 노동자이며, 학자, 문화인, 예술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민인 모든 카자흐스탄의 한인이 자신의 훌륭한 민족성인 현명함, 근면성, 지식열, 고매한 사고를 밀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사회, 경제, 정치 발전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의 녹음 연설에서 “존경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의 카자흐인과의 오랜 우의는 한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한민족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시고, 동시에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적 조국도 여러분의 안정되고 보장된 생활을 위한 노력에 도움과 지지를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995년 8월 15일 한반도 해방50주년과 아바이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알마티에서 열렸다. 이때 카자흐인의 정신적 스승인 아바이의 ‘잠언집’이 처음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카자흐스탄에 정기적 국제 한국학 모임이 열리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

한국학회'가 결성되어 한인 이민에 대한 학술 및 문학 서적이 출판되었다. 민족 재생의 과정에서 한국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으로부터 교과서, 사전, 학습 기자재, 사무 자동화 시설, 컴퓨터를 제공받고 있다. 한국측은 또한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학교의 동방학 대학과 아바이 명칭 알마티국립대학교, 기타 수도 및 지방 대학의 한국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십여명의 한국 교사들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학자들과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언어와 한국학을 연수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한인들 사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원 이래 지금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수백명의 한인들이 한국어, 컴퓨터, 민속악기, 민속무용, 가요를 학습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한국교회가 열리게 되어 신자들은 예배외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인의 역사적 관습에 의하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60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총결산해야 하는 완숙과 지혜의 연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 한인의 정신적 발전이 시작되었던 그 출발선이 분명하게 보인다. 모든 운명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전은 교육의 성장을 수반했으며, 대학교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한인 학생들의 수를 늘렸다.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전문가의 현저한 배출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화국의 노동능력 인구 천분율을 볼 때 한인은 1,000명당 252명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공화국 평균은 113명이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지 60년 동안 활발한 정치가, 학문, 교사, 의사, 경제인, 기사, 법률가, 문화인, 기타 고급 전문가 등의 숫자는 팔목한 성장을 하였다. 한인은 점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최고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만큼의 존경을 받았다. 최고의 한인 대의원은 젤리노 지대 솜호즈 관리부국장이었던 박 알렉세이 안드레예비치로 1950-55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회의 농업위원회 위원이었다.

다음으로 김 일리야 루키치는 1958-70년 동안 네 차례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딸느꾸르간 까라딸 구역 '우슈또베' 솜호즈의 양금가 김 엘라 이바노브나는 1958-89년까지 대의원이었다. 소련 국가 포상 수상자인 김 니꼴라이 니꼴라예비치는 1990년에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산업·교통·통신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김 니꼴라이 이바노비치(1985), 김 로자(1970), 김 유리 알렉세예비치(1993), 리전한(1975), 렘경철(1970), 장 올가(1955), 황 니콜라이 그리고리예비치(1963), 허가이 크세니야(1963), 신 베라 바실리예브나(1970), 전 모이세이 알렉세예비치(1980, 1985, 1990)가 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마질리스)의원으로 알마티 중학교 교장 설라리사 빼트로브나(1995)가 당선되었다.

한인중에는 여러 해에 걸쳐 정부부처, 대기업체, 대통령 비서실 등 고위 공직 종사자가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경제학 박사이며 교수이고 레닌 훈장과 기타 정부 표창

을 받은 바 있는 김 일리야 루키치로 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김 계오르기 블라지미르비치는 민족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차관급의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은 강비토르 빼트로비치(내무부), 김아파나시 그리고리예비치(경제학 박사, 교수, 청소년·여행·체육부), 김 이반 바실리예비치(지역산업부), 김 유리 알렉세예비치(법무부), 박 알렉세이 안드레예비치(양금산업부), 박 세 알렉산드로비치(카자흐스탄 공화국 내각 재정부장), 박 겐나지 니꼴라예비치(곡물제품부), 황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육류·낙농산업부), 허가이 알렉세이 유리예비치(도로부), 니 블라지미르 바실리예비치(대통령 행정수석)가 있다. 한인중 장성은 경찰 소장(小將) 채 보리스 알렉세예비치와 3급 국가 법률고문이며 사법 소장(小將)인 허가이 아르까지 유리예비치가 있다.

또한 한인중에는 적지 않은 유능한 고급 전문가, 전축가, 기사, 생산 지도자가 있다. 한인 이민의 일반적 직업중의 하나는 학문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적 노동이다. 오늘날 약 400명의 박사와 준박사가 대학교와 대학,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한인 이민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자 자부심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인은 카자흐스탄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한인 학자 사회에서 가장 명망있는 사람은 기술학 박사이자 교수이며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니 레오니드 빼블로비치이다. 그는 오랫동안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야금 및 선광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발군의 공적으로 소련 국가 포상과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카자흐스탄 공훈 과학자' 칭호를 얻었다. 물리-수학박사이자 교수이며, 과학아카데미 객원회원인 김영광 인수고비치는 오랫동안 카자흐국립대 수학과 학과장과 과학아카데미 수학 및 역학연구소 실험실 소장으로 일하여 역시 공훈 과학자 칭호를 얻었다. 지질·광물학 박사인 리비탈리 가브릴로비치는 20년 동안 과학아카데미 지질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면서 지질학 분야에서 이룩한 높은 업적으로 소련 국가 포상과 카자흐 공화국 포상을 받았다. 박 다비드 니꼴라예비치(농업학박사, 교수)도 20년 이상을 카자흐스탄 축산과학조사연구소 낙농가축 품종개량 및 번식 분과장으로 일하면서 이룩한 업적으로 소련 국가 포상과 공훈 과학자 칭호를 받았다. 최 라브렌치 이바노비치(농업학박사, 교수, 공훈 과학자)는 알마아타 축산대학의 양사육학과장으로 일하면서 축산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1970년 소련 국가 포상을 받았다. 리 빅토르 도이코피치(경제학 박사, 교수)는 알마아타 인민경제대학에서 교수와 학장으로 학문과 교육의 길을 시작하여 현재는 까라간다 협동조합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400여명 이상의 박사, 교수들이 대학교와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강 계오르기 바실리예비치(역사학), 권 세르게이 승구비치(채광학), 김 오롬베트 메포지예비치(의학), 김 올레그 가브릴로비치(철학), 리 니꼴라이 니꼴라예비치(경제학), 리 블라지미르 알렉산드로비치(물리-수학), 리가이 마리나 알렉세예브나(교육학), 문 니꼴라이 바실리예비

치(의학), 니가이 그리고리 안드레예비치(의학), 박 알라 미하일로브나(화학), 박 세묜 미하일로비치(생물학), 박 이반 씨모페예비치(기술학), 박 마리트 알렉산드로비치(물리-수학), 박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기술학), 오가이 엘레나 알렉산드로브나(의학), 전 안나 니꼴라예브나(어문학), 한 구리 보리소비치(철학), 한 옥짜브리 알렉산드로브나(야금학), 황 미하일 바실리예비치(생물학), 최 길영 바실리예비치(의학), 최 이고리 길영노비치(의학), 최 빅토르 세묘노비치(채광학), 채 세르게이 메포지예비치(기술학), 심 파벨 세묘노비치(경제학) 등이다. 과거에 소련 과학아카데미 회원 김 막심 파블로비치(역사학), 김 게오르기 폐도로비치(역사학), 김 승화(역사학), 니 블라지미르 폐도로비치(역사학), 니 알렉산드르 레오니도비치(물리-수학), 최 유리 알렉세예비치(기술학), 유가이 계라심 안드레예비치(철학) 등도 탁월한 학자들이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박사들과 함께 공화국 고급 전문가들로 인정되는 준박사, 부교수들로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중의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 갈리나 바실리예브나, 리 세르게이 바실리예비치, 김 게르만 니꼴라예비치, 반 니꼴라이 그리고리예비치, 권 류드밀라 알렉산드로브나, 니 발렌틴 학수노비치, 예가이 블라지미르 스테파노비치, 니가이 보리스 니키토비치, 니가이 아나스타시야 그리고리예브나, 박 넬리 세르게예브나, 박 보리스 안드레예비치, 유가이 엘리자베파 세르게예브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인은 기구한 운명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문학의 진원지이며 민족의 관습과 전통의 수호자인 민족예술의 발전에 성공하였으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한인 예술은 언제나 한인 이민의 한가운데에 있고자 노력했고, 영원히 그들을 위한 복무를 계속할 것이다. 한인 극장의 레퍼토리에는 카자흐인, 러시아인, 한인 작가의 고전작품들이 공연되었다. 한인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이래 기라성 같은 재능있는 배우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는 많은 카자흐스탄 이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김 블라지미르 예고로비치, 김진, 김림마 이바노브나, 김 블라지미르 알렉산드로비치, 강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치, 강 표트로 포트로비치, 김 파블라 알렉산드로비치, 김호남, 김 젠나지 세르게예비치, 리 베니아마나 블라지미로브나, 리경희, 리합덕, 리길수, 리영수, 림 로자 블라지미로브나, 리 니꼴라이 포트로비치, 맹동욱, 문 알렉산드르, 박 보리스 뽀트로비치, 박 마이야, 박 소피야 산추코브나, 박춘섭, 문 류드밀라 알렉세예브나, 문공자, 김 조야 빅토로브나, 손 올가 창섭예브나, 송 게오르기 니꼴라예비치, 조정구, 태장춘, 채영, 최봉도, 최국인, 조균화, 최 따찌야나, 한 야꼬브 니꼴라예비치, 송 라브렌찌 자주노비치 등등 많은 사람이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민족적 색채를 지닌 작품을 쓰는 한인작가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산문작가, 극작가, 시인들로 대표적인 사람은 연성용, 강 알렉산드르, 강 겐리에파 막시모브나, 김광현, 리 스파니슬라브, 김준, 강태수, 조명희, 남해룡, 박 미하일 씨모페

예비치, 한 안드레이, 한진, 양원식 등이다. 체육 분야에서도 한인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0-80년대 마루체조에서 김 넬리는 카자흐스탄, 유럽 선수권은 물론 올림픽에서 챔피언으로 빛나는 별이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인채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소련 공훈권투지도자로 카자흐스탄과 소련의 권투 발전에 막중한 공헌을 하였다. 그의 지도하에 카자흐스탄, 소련, 유럽 챔피언과 올림픽 수상자 등의 가장 절 높은 선수들이 되었다. 소련 공훈지도자인 황 마이 운전노비치의 문하생들도 스케이트 경기에서 국내, 유럽, 세계기록을 수립하고 챔피언이 되었다. 우스찌-까메노고르스키의 '보스토크', 젤리노그라드의 '젤리나크'와 알마티의 '카이라트'의 주임지도자 전일손(전 안드레이)도 축구 여성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한인 중에는 또한 적지 않은 유능한 건축가와 설계사가 있다. 한인 건축가의 몇몇 작품은 대단한 평판을 받았다. 김 블라지미르는 수도 알마아타의 공화국 궁전의 건축으로 소련국가포상을 받았다. 이상의 카자흐스탄 한인 이민의 모든 성과와 업적은 근면성, 불굴서으 지식열 같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한민족적 특성과 그리고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다른 민족과의 상호 이해와 우의의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극장>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의 한인의 민족문화생활에서 한인극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다. 한인극장은 1932년 9월 9일 블라지보스톡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가장 우수한 독립적인 극단, 가무예술단이 이 극동한인극장으로 통합되었다. 극장 창립자들은 리길수, 태장춘, 김해운, 연성용, 김진, 리함덕, 최봉도, 김 익수, 전후검, 최길준, 리정희, 전 빅토르, 오철람 등이다. 조명희와 박일 등의 작가와 번역가들도 긍정과 긴밀한 협조를 하였다.

1932-37년 블라지보스톡 시절에 배우단이 형성되고 민족연극이론이 생겨났고, 극장의 창조적 방향이 정해졌다. 그 시대에 공연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춘향전', '장한몽(영원한 외침)', '야로바야의 사랑' 등인데 이 작품들로 인하여 한인극장은 한민족 창작집단으로 성격지어졌다.

1937년 극동한인극장은 공연을 위해 필요한 관객의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소련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재조직되었다. 극장의 주요 종사원은 크즐-오르다와 타쉬첸트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립적인 '음악연극조선극장'을 조직했다. 한인극장이 카자흐스탄에 이전한 뒤 처음으로 1939년 카자흐스탄 한인 콜호즈에 관한 태장춘 작 '행복한 사람들'과 꼬르네이추크 각본 '분합대의 죽음'이 공연되었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한 뒤

로부터 극장의 활동은 한인들과 다른 민족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민족적 레퍼토리의 연극과 음악회 프로그램을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카자흐스탄 한인 콜호즈에서 공연한 사실이 증명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에 극장은 작업을 개조하여 1941년 7월 7일에는 ‘방위 구상’이 극장이 레퍼토리에 포함되었고, 전쟁에 관한 노래와 시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배우들은 후송된 주민과 병원의 부상병 앞에서 공연하였다. 극장 종사원들은 붉은 군대 지원 사업에 참가하였다.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조선극장’은 카자흐스탄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42년 1월 13일부터 ‘관객 기반의 확보와 정상적 제작 조건에 의한 작업을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크즐-오르다에서 우슈또베로 이주하여 팔디-꾸르간 주립 극장이 되었다. (1950년 타쉬켄트 극장과 팔디-꾸르간 주립 극장은 하나로 통합되어 우슈또베가 소재지가 되었다. 이 통합에 관한 정부 결정은 발견되지 못했다.)

우슈또베에서 극장은 구역 문화 클럽 건물에 치되었다. 극장을 위한 배우들과 지역 콜호즈 조합원들의 열과 성의로 갈대와 점토로 만든 보조 건물이 지어졌다. 지붕은 항상 비가 쌓이고, 건물 벽은 붕괴되었고, 난방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겨울에 배우들은 난방이 없는 무대에 나서야했고, 관객들은 두꺼운 장화와 모피외투를 입고 방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살아 남았고, 활동을 계속했다.

전쟁 기간 동안 극장에서는 극동에서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위한 싸움과 전설적 유격대장 홍법도를 주제로 한 태장춘 작 ‘홍법도(1942)’가 무대에 올랐고, 이외에도 편 작 ‘표트르 크르모브(1942)’, 까타예브 작 ‘푸른 손수건(1943)’, 시모노브 작 ‘낫과 밤(1944)’, ‘그렇게 될 거야(1945)’가 공연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극장 극작가 채영은 카자흐스탄 한인 콜호즈의 성공을 주제로 한 ‘즐거운 생활(1949)’을 무대에 올렸다. 그 때에 또한 오스트롭스키의 ‘뇌우(1950)’, 고골리의 ‘검찰관(1952)’, 세익스피어의 ‘오델로(1953)’와 같은 고전 작품도 공연되었다. 극장의 중요한 작품으로 한반도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도 있었다. 태장춘의 ‘3·8선 남쪽에서(1950)’와 연성용의 ‘불타는 조선(1952)’이다.

1955년 3월 25일 극장 종사원들은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중앙위원회로부터 극장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상하고, 1955년 가을에 아마아타에서 객연 조직, 1956년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에 창작 출장 여행, 5년 계획으로 극장 건물 건축, 극장에 가즈-51형 트럭을 제공한다는 대답을 얻었다. 1959년 5월 30일 카자흐스탄 내각은 극장의 소재지를 우슈또베에서 크즐-오르다로 이전할 것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제 극장은 다시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조선극장’이 되었다.

1962년 3월 22일 ‘크즐-오르다 주립 음악연극조선극장’은 소련 전체 한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음악연극극장’으로 개칭하였다. 1962년 12월 7일 ‘한인극장의 예술 발전에 대한 공로’로 다수의 국장 배우와 종사자들이 명예 칭호와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포상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인민 배우’ 칭호는 카자흐스탄 공훈 배우인 김진, 리함덕에게 주어졌으며, 리영수에게는 공훈 배우 칭호가 주어졌다. 극장장 조정구, 카자흐 공훈 배우 최봉도, 극장 연출 주임이자 카자흐 공훈 예술가 채영, 카자흐 공훈 배우 박춘섭에게는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명예포상이 수여되었다. 최고회의 포상은 카자흐 공훈 예술가인 연출가 연성용, 공훈배우 리 N.P., 리길수, 공훈배우 리경희, 카자흐 공훈 예술가인 화가 강 G.M., 배우 노가이 E.N., 장 D.E., 극장 분장주임 박정희, 무대기술자 허현덕에게 돌아갔다. 1960년대에는 타슈켄트 오스트롭스키 명칭 국립연극예술대학과 알마아타 국장예술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극장 배우단에 가입했다. 1963년 11월 25일 조선극장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내각은 1964년 1월 1일부터 극장을 주립에서 공화국 소속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 1968년 극장은 알마아타로 이전을 하였고, 1968년 1월 8일부터 카자흐스탄 문화부의 명령에 의하여 ‘카자흐공화국 국립 조선음악연극극장’으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극장은 다음에 음악회극극장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동안 극장에서 공연된 레퍼토리의 주제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의 주된 경향이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소련, 카자흐스탄, 한인을 주제로 한 것이다. 최초로 공연된 카자흐 연극은 G. 무스레뽀브 작 ‘코즈 코르페시와 바얀슬루’, K. 무하메드잔노브 작 ‘모자를 쓴 늑대’, M. 아우에조브 작 ‘까라고즈’, ‘꼬불란듸’, O. 보드꼬브 작 ‘까라꿈의 비극’, G. 무흐따로브 작 ‘알란의 가족’, ‘나는 할머니와 결혼할거야’이었다. 다른 소련 작가들의 작품으로는 바라따쉬빌리 작 ‘잠자리’, 함자 작 ‘바이와 바트락’, 잘끼예브 작 ‘아버지와 운명’, 아이트마또브 작 ‘빨간 손수건의 소녀’, ‘어머니의 들’, 까리모브 작 ‘월식의 밤’ 등이 있다.

1982년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자발적 합병 250주년 기념 및 소련 국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조선극장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극장은 처음으로 모스크바 공연을 떠났다. 그 당시 극장 공연에 대한 광고 포스터를 보면 ‘춘향전’, ‘산 부처’, ‘토끼의 모험’, ‘3·8선 남쪽에서’, ‘꼬불란듸’의 극과 아리랑 가무단의 공연이 있었다. 1982년 국립고려극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소련 극장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표식 훈장’이 수여되었다. 1992년 9월 고려극장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였다. 극장은 카자흐스탄 한인의 문화의 원천으로서 한인 문화와 언어의 발전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려극장이 창립된 이래 5백만 이상의 관객에게 봉사하였으며, 약 250여편의 연극과 음악회를 공연했다. 카자흐스탄 한인 극작가들에 의해서 약 80여편의 희곡이 써어졌

고, 약 70여편의 러시아, 소련, 외국 작품이 번역되었다. 극장의 무대예술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김진, 리함더, 리 니꼴라이 베트로비치, 김 블라지미르 예고로비치, 김 림마 이바노브나의 카자흐 인민배우가 탄생하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공훈 예술가와 공훈 배우가 되었다. 고려극장이 탄생한 아래 창작적 활동 중에서 연주단의 공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차 대전 이후 극장 내부에 독립적인 창작연주단의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956년 극장 지도부는 문화부에 '극장 소속 민족연주단의 창설'에 대한 청원의 편지를 제출하였다. 1968년 크즐-오르다에서 알마이타로 이전한 후 1960년부터 시작해온 기존 활동을 기반으로 독립적 창작 집단으로서 연주단 '아리랑'이 창립되어 관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소련 한인의 음악적 창작 활동은 간단없이 조선 극장과 관계를 맺고 있다. 리 A.G., 오철람, 박영진, 김 B., 전인묵 작곡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극의 음향은 극장 무대의 기본적 예술활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1957년 한 연극 시즌에서만 12곡의 새 노래가 작곡되었다. 가사는 연성용, 김광현, 리길수, 김진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 극장의 창작적 업적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의 한 명은 공화국 공훈 예술가 강 G.M. 화가이다. 그가 만든 민족적 인상이 강한 무대장치는 다수에 걸쳐 평론가들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려극장이 모든 다른 한인 문화기관과 마찬 가지로 항상 자신의 작업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아주 심하게 겪었음을 지적하고 가야 한다. 아마도 자신의 이민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한인들은 이를 알 것이다. 소련 붕괴와 함께 구소련 전체의 경제상태의 총체적 악화와 문화발전 항목에 대한 예산의 감축 등의 문제는 극장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물질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배우들은 임시로 빌린 무대에서 방랑을 계속하고 있다. 빈약한 월급으로 배고픈 배우들을 안고 가기엔 너무나 힘겹다. 그래도 역시 조선극장은 이 모든 곤란과 곤궁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쉽지 않은 길을 뚫고 있다.

<언론 매체>

(1) 신문

최초의 한어 신문 '아반가르드(선봉)'는 1923년 극동에서 탄생하였다. 선봉은 한인 이민의 생활, 관습, 전통, 역사에 관한 정보를 출판했다. 이 신문의 지면에는 전체 극동의 산업, 문화, 사회 생활에서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새소식에 대한 정보가 실렸다. 신문의 통신원과 필자들은 한인 사이에서 문맹 퇴치와 교육, 문화의 발전과 농사 경협의 습

득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신문에는 한반도와 극동지역에서의 현저한 한인 민족해방운동의 활동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형태는 시, 이야기, 수필 등 매우 다양하였다. 신문은 또한 독자들에게 지역주민을 광범위하게 소개하였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제쳐놓지 않고 한인의 이해를 대변했다.

1937년 한인의 강제이주 후에는 신문의 발행은 크즐-오르다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레닌기치’로 이름이 바뀌어 1938년 5월 15일 제1호가 발행되었다. 레닌기치는 처음엔 구역 신문으로 시작되었고 다음에 주립 신문이 되었다. 당시에 뛰어난 한인 기자들이 한민족정기신문 간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레닌기치는 한인 이주민의 사회정치적 생활과 계몽, 문화발전, 문학, 언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930-40년대 새로운 조국에서의 한인대중들의 삶에 있어서 레닌기치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얻은 선진적 경험의 더욱 광범위한 교환과 업적의 대중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4년 1월 1일부터 크즐-오르다에서 발행되고 있던 레닌기치를 주립신문에서 공화국 신문으로 승격시키고, 프라우다 신문의 크기로 4면, 주 5회 발행, 발행부수 7,000부까지만 늘릴 것을 명령하였다.

전쟁기간 동안에는 신문은 파시스트 침략자와의 투쟁에 주민 동원을 위한 주요한 전투수단이 되었다. 신문에는 수백편의 전방과 전선 후방 도시에 대한 보고와 통신기사, 사진이 실렸다.

전쟁후 인민 경제의 복구와 발전, 쳐내지와 황무지의 개간, 민족간 우의의 강화를 위한 근로자의 애국운동 기간에 레닌기치는 발군의 조직적, 선전적 역할을 하였다. 신문은 끊임없이 경제전략을 선동, 해설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부를 양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문에는 계속해서 생산의 선구자, 경제관리의 효율성과 질 향상에 관한 가치있는 귀중한 새로운 사업과 시도에 관한 기사들이 실렸다. 신문은 지면을 통해서 당면한 한인의 역사와 문화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결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였고, 서로 경쟁하는 기업간에는 경험을 교환하도록 하였고, 선진적 생산자와는 대담을 나누었다. 신문사 기자들은 또한 교사들이 국내적 생활과 국제적 사전에 대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인의 정치적, 사회 철학적,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인 이민 사회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신문은 많은 수의 정식 혹은 비정식 통신원에 의지하여 한인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국가 통제하에 다루었다.

1978년 레닌기치는 크즐-오르다에서 알마아타로 이전하였고, ‘전 소련 공화국간 신문’이 되었다. 독자층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문을 모국어와 러시아어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어 독자층에게도 관심이 증가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레닌기치가

국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중 동원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1988년 레닌기 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인민 우의상’을 수여하였다. 1980-90년대의 레닌기치에는 한인 작가의 소설, 시, 단편소설과 한인 강제 이주에 대한 한인 학자들의 날카로운 학술적 논문들이 실렸다. 1991년 레닌기치는 ‘고려일보’로 이름을 바꾸어 주3회 발행의 국제신문이 되었다. 고려일보는 C.I.S. 한인의 소식 전달자이며, 여기에서 독자들은 국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고려일보 지면에서 우리는 고려인협회와 다른 한인 단체들의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간부회에 관한 자료를 읽을 수 있다. 최근에는 2차대전 기간 전투와 노력전선군 참전자, 스탈린 감옥과 수용소 수형자의 회상에 대한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다. 비록 현재 신문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해도 성실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일보는 견고하게 한인의 생활속에 자리를 잡았다. 독자들은 바로 이 고려일보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알려자자 않은 많은 진실을 알게 된다. 요사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C.I.S. 한인에게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곳 한인동포들에게는 한반도에 관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연구와 문학적 저술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 관한 자료를 고려일보를 통해서 얻는다. 고려일보는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을 위해 충실히 봉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모국어 수호자로서의 고려일보의 소멸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은 한인들 사이에서 명예로운 권위를 향유한다.

(2) 한인 라디오 방송

한인 라디오 방송도 자신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인 라디오 방송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산하 ‘공화국 한인 라디오 방송’이 되기 전 한인 라디오는 극동, 크즐-오르다, 알마아타에 이르는 긴 여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제이주 후 한인 방송은 폐쇄되었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여러 단체에 우리말 방송을 열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 결과 크즐-오르다 한 곳으로만 전파되는 한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한인은 크즐-오르다 뿐만 아니라 알마아타, 잠불, 팔디-끄르간, 침켄트 등지에서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공화국 방송망으로 개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4년 5월 16일 알마아타에서 1주 2회 30분간의 우리말 방송이 시작되었다. 한인 라디오 방송의 목적은 청취자들에게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하고, 공화국 한인들의 생활, 한인 이민의 역사, 문화, 사회 문제를 해설하는 것이다.

현재 한인 라디오 방송은 1주일에 4회씩 20-30분간 우리말로 진행된다. 방송의 주제는 방송극, 한인 극작가의 연극, 학교와 가정, 학교생활, 한반도 소식, 모국어 학습 등

매우 다양하다. 한인 라디오 방송은 외국의 방송사와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KBS)와 1989년부터 관계를 맺고 있다. 1994부터는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멀고 가까운 외국에서 방송을 전파하고 있다. 한인 라디오 방송 설비는 대한민국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서울에서 다양한 최신의 뉴스 기와 카세트, 마이크 등의 설비를 제공했다. 이 모든 원조는 청취자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적 조국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재 방송국은 필두로 5명이 일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 유명한 학자, 작가, 배우, 기업가 등이 출연하고 있다. 1937년 강제이주의 체험자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땅에서의 어려웠던 첫해의 자신의 회상을 젊은 세대에게 전한다.

라디오는 카자흐스탄 한인의 현실적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3) 한인 텔레비전 방송

한인 텔레비전 방송은 텔레비전 고유의 대중성, 실행성, 현장성, 기록성, 정서적 감화라는 특성 때문에 한인의 가장 대중적 언론 매체이며, 선동, 교육, 계몽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단인 ‘고려사람’은 1991년 설립되어, 2월 4일에 처음으로 전파를 탔다. 맨처음 단계에는 한달에 한 번씩 카자흐스탄 한인에 관한 크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다 점차 방영시간을 늘여가기 시작해 9명의 직원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씩 방영된다.

‘고려사람’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한인 문화 생활에서의 주요 사건과 한반도의 정치, 경제 소식을 방영한다. 텔레비전의 주요 장르는 소식, 단편주제영화, 보고, 인터뷰, 담화, 모국에서 온 동포나 귀빈의 출연이다. 텔레비전 영화, 조선극장의 연극, 음악회, 한인이민의 모임과 회의, 축제, 명절 의식 등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아주 다양한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과 주제 음악회는 학자, 음악가, 배우 등의 창작적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해마다 ‘고려사람’ 방송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덕분으로 공간적으로 영토적으로 방영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다. ‘고려사람’ 텔레비전은 주요한 대중매체의 하나이다.

결 론

결국 시간은 앞으로 간다. 일련의 문제들이 과거로 사라지고 그 문제들은 역사가 된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생겨난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은 이미 지나온 세월처럼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는

이미 실현된 사실이다. 그 과정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고, 한때는 슬프고 한때는 기뻤던 페이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한 행, 한 행은 한인 이민의 자산이요, 모든 카자흐스탄 인민의 자산이다. 역사에는 단순한 방관자도 국외의 관찰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역사를 창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창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과의 만남으로서 비로소 우리는 그 역사를 자각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떨리는 열기로 조심스럽게 역사를 대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간은 역사의 가장 작은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한인은 어떻게 21세기를 맞아야 할것인가? 아시아의 한 끝으로부터 다른 끝으로 옮겨진 운명을 가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세를 위한 조국을 찾은 한인 이민들에게 어떠한 전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는 삶 그 자체만이 대답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카자흐스탄 한인은 그들의 역사적 조국인 한반도의 역사와, 그들의 조상들이 이민을 왔던 러시아 극동의 역사와, 그들이 강제이주의 고통의 시기에 단순한 피난처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조국이 된 카자흐스탄의 역사가 함께 섞이어 짜여진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그 만큼 한반도와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뿌리 깊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카자흐인이 다민족국가 카자흐스탄의 모든 인민들과 억압받은 한인들을 위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보여준 높은 수준의 역사적 의식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한인들은 이 도움에 대한 기억을 자자손손 전달하면서 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은혜를 입은 한인은 그들이 놓이게 된 고난의 운명을 용기와 특징으로 이겨내고, 민족간의 단합과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면서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그들의 힘을 아끼지 않고 기여하여 왔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한인은 놀랍게도 강하고 소멸할 수 없는 그들의 민족의식을 보여주었다. 민족의식, 민족정신은 해마다 계속된 탄압과 박해에 시달리고 지친 그들 가슴의 한 구석에서 잠시 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낙관적 상황이 오기 마련이고, 그때는 그 상황은 한민족 성원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많은 민족 사이에서 더욱 분발하게 하면서, 동시에 배가된 힘으로 자신의 역사적 조국에 대한 각성을 하도록 할 것이다.